

존경하는 대표이사님

어느덧 우리 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대표이사님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지난 협회 40년사를 발간할 때와 같이 협회 50년사 제작을 위해 이번에도 저에게 편찬위원장직이 하달되었고 지난 2월에 1회 편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의 진솔한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KOIMA는 애환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헤쳐왔고 세계 9위권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무역일꾼들의 새벽을 깨우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회원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가슴 속에 묻혀 있던 숨은 이야기를 글로 묶어 수필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날의 애증의 세월을 300자 원고지에 12매 내외로 담아 보내주시면 차세대 무역인 후배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회에서 안내하는 기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50년사 편찬위원장 김창송 올림